

‘2위의 반란’ 중위권 카드사 신한 맹추격... 점유율 경쟁 치열

(점유율 1위)

삼성·KB국민·현대 점유율 확대
신한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 집중”
법인카드 실적 영향 삼성카드 2위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를 뒤쫓는 중위권 카드사의 점유율 확장세가 매섭다. 신한카드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삼성·KB국민·현대카드 3사에서 점유율을 1%포인트 이상 확대하면서 1위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개인·법인카드 신용판매 취급액(일시불·할부)은 140조3093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 시장점유율은 신한카드가 21.33%(29조9247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 18.16%(25조4854억원) ▲KB국민카드 17.92%(25조1382억원) ▲현대카드 16.60%(23조2933억원) ▲롯데카드 9.37%(13조



1492억원) ▲우리카드 8.85%(12조4129억원) ▲하나카드 7.77%(10조9055억원) 순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2위 자리를 놓고서 수 년째 경쟁하고 있는 삼성, KB국민, 현대카드가 공격적으로 확장에 나

서면서 신한카드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분기만 하더라도 1위와 2위의 점유율 격차가 4.27%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2분기 들어서 3.1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신한카드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

고 있지만 2분기 점유율에서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 22.12%를 차지했으나 이후 같은해 2분기 21.74%, 3분기 21.93%, 4분기 21.76%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1분기 21.97%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다시 3개월 사이 0.64%포인트가 빠지면서 21.33%까지 하락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약간의 점유율 변동이 있더라도 2위권과는 격차가 있다”며 “1위인 만큼 점유율 확대보다는 자동차할부, 렌탈 중개부문의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가 주춤한 사이 이를 뒤쫓는 삼성카드·KB국민카드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삼성카드, KB국민카드는 올 2분기 각각 0.49%포인트, 0.21%포인트의 점유율을 늘렸다.

또한 지난 1분기 중 순위 변동이 일어났던 2위 자리는 법인카드 실적에 힘입어 삼성카드가 재탈환했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는 최근 법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영업을 강화한 것이 점유율 상승 배경으로 지목된다. KB국민카드가 전분기 대비 법인카드에서 3330억원(9.7%) 가량 증가했지만, 삼성카드가 같은 기간 법인카드부문에서 4991억원(13.51%) 늘리면서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2위와 3위를 바짝 뒤쫓는 현대카드도 카드사 점유율을 전분기 대비 0.32%포인트 늘리면서 16.60%를 차지했다.

현대카드는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라인업에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 각 분야 주요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분기에만 회원수를 11% 가량 늘리면서 연말까지 카드 회원수가 10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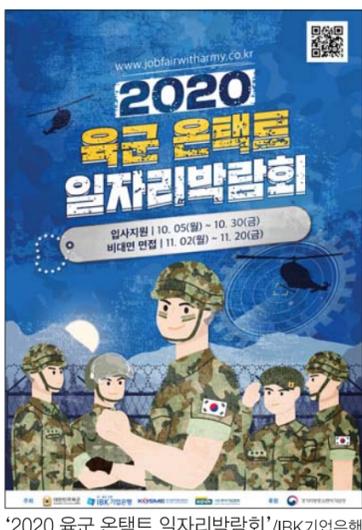
“전역 장병들의 사회 진출을 응원합니다”

IBK기업銀 육군 온택트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벤처 기업 123개사 채용
면접까지 모든 과정 온택트 방식 진행

IBK기업은행이 전역 장병들의 사회 진출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2020 육군 온택트(Ontact)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스피 상장기업을 비롯한 우수 중소·벤처·중견기업 123개사가 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도 15개사가 참여한다.

지원자들의 이력서 접수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은 영상기반 채용 플랫폼을 통해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별 상담 게시판에서 인사 담당자와



‘2020 육군 온택트 일자리박람회’/IBK기업은행
양방향 소통도 할 수 있다. 서류합격자들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구직자 전원에게 직무별 AI(인공지능)모의면접도 무료로 제공된다”며 “비대면 면접에 익숙하지 않은 전역장병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람회 개막식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된다. 이날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 각 기관장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취업 성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이력서 접수는 10월 30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정보는 ‘2020 육군 온택트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銀 AI 활용 불완전판매 탐지 정확도 개선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은행 WM사업부와 디지털전략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이번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는 기존 인력에 의존한 점검업무를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해 불완전판매 탐지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로봇은 매일 전국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수천건의 투자상품 거래신청서 점검을 통해 ▲서류 불비항목 추출 ▲미흡사항 영업점 전달 및 보완 등 불완전판매 사후관리에 활용된다. 점검 결과는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불완전판매 제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환 행장은 “이번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상품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RPA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중심 디지털휴먼뱅크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웹툰 콜라보 ‘200일 적금’

우리은행은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유미의 세포들과 콜라보레이션해 우리WON뱅킹에서 웹툰 방식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우리 200일 적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 200일 적금은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일일 3만원 이내 금액으로 나에게 맞는 플랜을 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입금 플랜은 ▲내가 정한 금액을 매일 자동이체 하는 ‘자동적립 플랜’ ▲매일 푸시알림을 받아 누르면 한 번에 입금되는 ‘꾹 적립 플랜’ ▲일정 금액 미만의 잔돈을 자동으로 입금하는 ‘계좌 자투리 적립 플랜’ 등이 있다.

적금 이율은 최대 2.3%로 기본금리 1.0%에 우대금리 1.3%포인트를 적용한다.

/이영석 기자

중소서민금융사에 분산 예금 ‘현명한 선택’

금융꿀팁 200선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신탁 등 중소기업 금융사의 예금보호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1금융권 은행이라도 펀드, 채권 상품은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금융상품 활용 팁을 안내했다.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탁·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탁법, 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까지 보호된다.

저축은행·신탁 등 중소기업 금융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은행 예금금리는 0.6~1.5%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은 1.2~2.0%에 달한다.

원금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한 개 금융회사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중소기업 금융사는 은행에 비해 지점수가 많지 않아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럴 때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활용하면 된다.

저축은행은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예금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부득이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거리가 너무 멀어 급할 때 방문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상품 가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는 할인·적립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자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어떤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銀, ‘손으로 출금’ 1주년 이벤트

출시 1년만에 이용자 150만명 돌파

KB국민은행은 오는 7일까지 ‘손으로 출금 서비스’ 출시 1주년을 기념해 ‘복불복(福不福) 감사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00명을 추첨해 치킨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개별 통지한다.

‘손으로 출금 서비스’는 한 번의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통장, 입금, 비밀번호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한 신개념 창구 출금 서비스다. 기존 통장 기반의 거래

관행을 탈피하고 신분증, 인감 등의 일치 여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객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출시 1년 만에 ‘손으로 출금 서비스’ 이용자는 150만명을 돌파했으며, 매일 1만건 이상의 출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매일 약 5000여명의 고객이 꾸준히 서비스를 등록하고 있으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고령층 고객이 대면채널에서 디지털을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비대면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고령 친화적인 금융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